



##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

Dangun and Kija - Systematic study of the history of Kojoseon -

---

**저자**            조원진  
**(Authors)**       Cho, Won-Chin

**출처**            [단군학연구 \(31\)](#), 2014.12, 335-372(38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31\)](#), 2014.12, 335-372(38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6401505>

**APA Style**      조원진 (2014).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 단군학 연구(31), 335-37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1/05 13:4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

조원진\*

- |                        |            |
|------------------------|------------|
| I. 서론                  | IV.箕子和箕子朝鮮 |
| II. 국내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사의 체계 | V. 결론      |
| III.檀君(檀君)과檀君朝鮮        |            |

## I. 서론

국내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사의 체계는 『三國遺事』古朝鮮條의 ‘王儉朝鮮 1,908년설’과 『帝王韻紀』의 ‘前朝鮮(檀君朝鮮) 및 後朝鮮(箕子朝鮮) 각 1,000년설’로 대표된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帝王韻紀』의 이른바 ‘3조선설’이 정설로 채택되어檀君(檀君)과箕子是 오랜시간동안 前朝鮮과 後朝鮮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근대시기에 들어오면서 단군과 기자를 부정하는 일제의 연구가 발표되었고<sup>1)</sup> 이에 한국의 역사가들은 단군의 역사성과 성격을 밝히는

\* 세종대 역사학과.

데 힘쓰는 한편 기자조선은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고조선 일부지역에 동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sup>2)</sup>

전통시대의 고조선사 체계가 재검토되면서 학자마다 다양한 고조선사의 시대구분을 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고조선을 재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三國遺事』 등의 우리 문헌에 나오는 기록을 중심으로 고조선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요임금시대 개국설’의 기록을 존중하며 『三國遺事』 등의 국내문헌을 바탕으로 고조선사의 체계를 세우고 현재의 고고학 연구성과를 살펴보는 방법이다<sup>3)</sup>. 최근 북한학계도 이러한 전통 방식에 따라 고조선을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단군릉 발굴 이후 전조선(단군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30세기로 올린 근거가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후대 문헌 이용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대측정에 의존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국내문헌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三國遺事』 등의 기록을 재해석하며 ‘요임금시대 개국설’은 부정하면서 국내문헌과 중국문헌에 나오듯이 고조선의 왕호가 ‘檀君王儉(하늘임금)

- 1)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1970.
- 2) 申采浩,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6 ; 安在鴻, 『朝鮮上古史鑑』 上, 民友社, 1947 ;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2, 玄岩社, 1973.
- 3)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 김정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 4) 허종호 외, 『고조선 역사개관』, 중심, 2001 ; 전대준 · 최인철, 『조선단대사 : 고조선사』, 과학백과출판사, 2010.

→韓(한·칸)→王'으로 바뀌었다고 보며 '단군조선-한조선-고조선왕국'으로 시대구분을 시도하거나<sup>5)</sup> 요동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이면서 상유민이 이동한 상말주초를 고조선 건국 시점으로 보고 '소국-소국연맹-고조선왕국-평양고조선'으로 이어졌다고 본 연구<sup>6)</sup>가 있다.

셋째는 1990년대 말부터 고조선 관련 고고학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축적되면서<sup>7)</sup> 이를 바탕으로 국내문헌을 배제하고 주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기록을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고조선사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단군릉 발굴 이전에 요동지역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주목하던 북한학계가 이에 해당하며<sup>8)</sup> 최근 남한학계에서는 요서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를 통해 고조선사를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이 발표된바 있다.<sup>9)</sup> 이 경우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문화상을 파악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고조선을 비파형동검 시기의 문화로 그 존속연대와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up>10)</sup>

5) 徐榮洙,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1999.

6)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1993.

7) 河文植, 『古朝鮮地域의 고인돌 研究』, 백산자료원, 1999 ; 卜箕大,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 宋鎬晟,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吳江原,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 문화』, 청계출판사, 2006 ;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10.

8) 박진옥, 『조선고고학개요 : 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 박진옥,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조선 고대 및 중세초기사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92, 3~11쪽.

9) 李淸圭,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1993 ; 이청규,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2007 ; 박준형,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오강원,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2013 ; 조진선,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동양학』 56, 2014.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요임금시대 개국설’로 기록한 국내문헌과는 달리 선진문헌에는 상말주초 시기에 북방에 있던 국가로 숙신, 고죽 등의 이름이 보일뿐이며 조선이라는 이름은 현존하는 문헌으로는 춘추시대의 상황을 다룬 『管子』에서 처음 언급된다. 최근에는 선진문헌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민족이 중국문헌에 등장하는 시기를 좀더 소급하는 연구가 나온바 있다. 『尙書』<sup>11)</sup>에서 이미 상말주초 시기에 貊의 존재를 상나라가 인식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거나<sup>12)</sup>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전설에서 이미 기자조선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sup>13)</sup> 또한 춘추시대 이전에는 숙신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숙신과 조선을 동일한 국가로 보거나<sup>14)</sup> 선후관계로 보는 견해<sup>15)</sup>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급해 보더라도 중국고문헌에 나타난 조선 관련 기사는 상말주초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sup>16)</sup> 중국민족의 동북지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뒤늦게야 파악된 것으로 중국문헌에 나오는 기록을 기준으로 고조선을 복원하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것은 河北省 盧龍 일대의 난하 하류지역에 위치한 고죽국<sup>17)</sup>의 경우도 중국문헌에 거의 기록을

10) 김정배, 「古朝鮮과 琵琶形銅劍의 問題」, 『단군학연구』 12, 2005, 23쪽.

11) 『尙書』 卷4 周書 武成

12) 朴峻亨, 「濊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 『學林』 22, 2001.

13) 李仁哲,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제조건과 귀속문제」, 『中央史論』 23, 2006.

14) 金廷鶴, 「考古學上으로 본 古朝鮮」,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한규철, 「숙신 읍루 연구」, 『백산학보』 35, 1988.

15) 문안식, 「한국상고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16) 『죽서기년』 등의 기사를 근거로 숙신이 순임금때부터 중원국가와 교류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위 이민족을 상고시대 일과 연결시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인 특유의 역사기술 방식으로(양지영, 「古代 肅愼에 관한 研究」, 『중국사연구』 32, 2004.) 중국문헌에서 숙신의 등장시기는 상말주초라고 볼 수 있다.

17) 『史記』 卷61 伯夷列傳 第1, “(伯夷) 其傳曰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也 括地志云 孤竹古城在 盧龍縣南十二里 殷時諸侯孤竹國也”

남기지 못한 점이 참고 된다. 더 서쪽지역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원에서조차 춘추전국시대에야 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칭호가 『管子』에야 처음 등장하였다고 하여 ‘고조선사’의 상한을 기원전 7세기로 한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며<sup>18)</sup> 중국인들의 북방 내지 동방에 대한 인식의 확대 과정에서 ‘조선’의 등장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문헌을 통해 ‘조선’의 기원과 출현을 구명할 수는 없으며 『三國遺事』 등의 국내문헌을 주목해야 한다.<sup>19)</sup>

고조선사의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일단 국내문헌을 기준으로 확실한 토대를 세우고 여기에 고고학상의 편년을 결합시키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최선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sup>20)</sup> 따라서 본고에는 『三國遺事』 등의 국내문헌을 검토하여 먼저 고조선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여기에 중국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덧붙여 고조선사의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위만조선의 경우 ‘준왕정권기’에서 ‘위만정권기’로 중심세력만 바뀌었고 국가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사에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sup>21)</sup>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는 위만조선과 고조선(왕검조선)을 구분

18) 『管子』가 전국시대에서 서한 말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춘추시대의 사료로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春秋左氏傳』에 없는 杞國이 산동성의 安邱로 옮겨지던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춘추시대의 사실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管子』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록도 춘추시대 이래의 전승을 바탕으로 전국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파악된다(박준형, 『古朝鮮의 대외 교역과 의미 : 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2004, 67~69쪽).

19) 金貞培,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88, 2000.

20) 김정배, 앞의 글, 2005, 6쪽.

21) 박선미,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 14, 2001, 139쪽.

하여 분명히 나누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위만조선은 다루지 않고 그 이전의 조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내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사의 체계

고조선이 존재한 시기와 그 구분에 대해 『三國遺事』古朝鮮(王儉朝鮮)條와 『帝王韻紀』前朝鮮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壇君王儉은 唐高가 즉위한지 50년인 庚寅年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불렀다. 이후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그곳을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린지 1,500년이 되어 周 虎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箕子를 朝鮮에 봉하니 단군은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아사달로 돌아왔다. 은거하여 산신이 되었는데 수명이 1,908세였다고 한다.

당나라 『배구전』에 전하기를 고려는 본래가 고죽국(지금의 해주)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 되었고, 한나라에 이르러 다시 나누어 3군을 설치하여 이를 현도, 낙랑, 대방 이라 불렀다. 『通典』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다. 『한서』에는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3군으로 되어 있고 이름 또한 같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三國遺事』卷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 -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고 바람과 구름을 인도하였나. 釋帝의 손자로 이름은 檀君이었다. 帝高와 같은 때 무진년에 나라를 세워 帝舜시대를 지나 夏나라까지 왕위에 계셨다. 殷 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나라를 다스린 것이 1,028년인데 그 조화는 桓因이 전한 일이다. 그 뒤 164년 후에 어진 분이 군신관계를 다시 열었다.

-『帝王韻紀』下卷 前朝鮮紀 -

『三國遺事』古朝鮮條는 王儉朝鮮이 단절없이 1,908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으며, 『帝王韻紀』前朝鮮紀는 단군의 통치가 1,028년으로 끝나

고 이후 164년의 공백을 거쳐 후조선의 시조 기자가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帝王韻紀』는 단군이 세운 조선을 ‘전조선’, 기자가 세운 조선을 ‘후조선’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는 ‘전·후조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 칭했다. 『三國遺事』도 기자조선을 인정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단군은 기자의 동래로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겨갔을 뿐 왕검조선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연은 『三國遺事』에 ‘기자조선조’를 배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조 말미에 기자조선과 고구려의 연관성을 기록한 두 자료를 언급하고 이에 강한 의문을 표현하며 그러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반박하였다.<sup>22)</sup>

한편 허목의 『東事』에는 단군조선 약 1천년 이후 단군의 아들 부루가 북부여를 세웠고 이때 기자가 단군조선의 옛땅인 평양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으며 이후 부여는 금와가 부여의 뒤를 이어 동부여를 세웠는데 금와 말년에 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금와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다고 보았다.<sup>23)</sup> 단군조선 이후 부여와 기자조선이 각각 약 1천년씩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조선 시기에 북방의 ‘북부여-동부여-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계통과 남방의 ‘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지는 두 계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다른 역사서들이 대부분 기자-마한의 흐름만을 주류로 설정한 국사체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sup>24)</sup> 箕子朝鮮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帝王韻紀』와 같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고조선사 체계의 두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는

22) 차광호, 「『三國遺事』 ‘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사학지』 41, 2009, 64~65쪽.

23) 『記言』 卷32 外篇 東事1 檀君世家.

24) 한영우, 「17세기 중엽 南人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일지사, 1989, 112~120쪽.

『三國遺事』에 나타난 ‘王儉朝鮮(1,908년)－衛滿朝鮮’으로 이어지는 계통이고 두 번째는 『帝王韻紀』에서 나타난 ‘檀君朝鮮(1,028년)－箕子朝鮮(928년)－衛滿朝鮮’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다. 여기에 기자조선과 부여가 남북으로 약 1,000년을 병존했다는 계통도 있다.

흔히 단군조선은 고조선을 말하며 단군조선과 왕검조선이 같은 용어라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료에서 ‘왕검조선’과 ‘단군조선’은 그 범위가 다르다. 『三國遺事』의 ‘왕검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운 조선으로 위만조선을 제외한 고조선시기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기자 이전의 약 1,000년 동안만 단군의 통치기간으로 본 ‘단군조선’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느 계통이 더 원형이 가까운지를 살펴보면 먼저 『三國遺事』는 「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이 요임금때 건국하여 1,500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다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대는 기자가 동래했다는 연대와 맞지 않는데 이것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기록은 단군신화의 원형이 아니고 후대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sup>25)</sup>

고려는 이미 국초에 『舊三國史』를 편찬하여 그 속에 檀君本紀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6)</sup> ‘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의 王歷에서도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단군－고구려’로 이어지는 계승의식을 강조한 史書에는 중간에 기자의 존재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중 『三國遺事』의 기록이 원형에 가깝지만 서한시

25) 이종욱, 앞의 책, 1993, 84쪽.

26)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3, 1982, 25쪽 ; 金貞培,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 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65쪽 ; 이도학,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 『한국사상사학』 40, 2012, 387~390쪽.

대에 위만조선이 망하고 고조선의 고유한 단군신화가 漢民族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기자전설과 뒤섞이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다가<sup>27)</sup> 결국 檀君朝鮮時代를 기자가 동래하기 이전으로 끊고 箕子朝鮮時代를 중간에 삽입하여 『帝王韻紀』와 같은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sup>28)</sup> 『三國遺事』에서 기자의 동래로 단군이 도읍을 옮겨갔다는 기록은 기자 기록이 처음 삽입되어 단군의 통치가 계속되는 고조선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자의 동래는 인정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三國遺事』는 단군이 평양과 백악산 아사달에서 1,500년을 다스렸다고 한 반면 『帝王韻紀』 등은 그 기간을 약 1,000년이라고 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조선 중종때 柳希齡이 저술한 『標題音註東國史略』의 기록이 참고된다. 이 문헌은 조선초기의 다른 문헌에서 살펴볼 수 없는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기자의 동래로 단군의 후손들이 장당경으로 옮겨가 장당경에 도읍한 시기까지 포함하여 단군조선의 역년이 1,5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三國遺事』의 기록은 기자동래로 인해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고조선의 전체 역년은 ‘평양-백악산 아사달’시기가 약 1,000년이고, 장당경 시기까지 포함하면 1,500년, 아사달로 돌아온 시기까지가 1,908년인 것이 원형에 가까운 체계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帝王韻紀』같은 전조선과 후조선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三國遺事』는 고조선의 도읍이 ‘평양-백악산 아사달-장당경-아사달’로 이어지며 1,908년을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기자조선을 염두해두고 단군조선의 역년을 약 1,000년으로 본 『帝王韻紀』 등의

27) 이기백, 「고조선의 제문제」, 『한국고대사론』, 탐구당, 1975, 25~26쪽.

28)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 20, 2009, 403쪽.

29) 『標題音註東國史略』卷1 前朝鮮

기록에는 고조선의 도읍 이동을 ‘평양-아사달’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평양-백악산 아사달’ 시기가 前朝鮮에 ‘장당경-아사달’ 시기가 後朝鮮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조선과 후조선의 시기 구분 자체는 그대로 두어도 좋을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각각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으로 볼 것인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檀君(檀君)과 檀君朝鮮

본 장에서는 전조선 혹은 단군조선의 연대 문제를 다루고, 아울러 단군왕검과 단군은 고유명사인가 일반명사인가 등의 기본적인 사항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대문제

먼저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전통적인 ‘요임금시대 개국설’과 ‘위서 편찬시점 기준설’이 있다. 단군 즉위년이 堯의 원년인가, 25년인가, 50년인가 하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요임금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문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sup>30)</sup> 요임금시기는 기원전 2300년 무렵인데 요 원년을 기원전 2,085년이나 기원전 2,145년이라고 파악하는 견해<sup>31)</sup>도 있어 요임

30) 김성환,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31) 方善柱, 『韓·中 古代紀年の 諸問題』, 『아시아문화』 2, 1987, 12쪽 ; 하라다 가즈요시(原田一良), 『《本紀》檀君即位年の 復元』,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민속원, 2009, 253~254쪽.

금 시기는 폭넓게 본다면 기원전 24세기~21세기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설상의 '요임금 시대'는 실재 여부가 불확실하고 연대도 확실하지 않아 건국연대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기록들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천여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셨는데,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는데 이때는 중국의 고임금과 같은 시기였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인 실체의 사실만을 적시한 이 구절은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연대를 대략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요임금과 동시대라는 표현과 함께 『魏書』가 존재하던 시기를 전후해서 2천년전 단군이 존재했다고 하여 이 『魏書』가 왕침의 『魏書』 또는 『魏書』의 범칭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부터 3세기 중엽에 편찬된 문헌으로 여기서 2천년전은 기원전 18~17세기라는 또다른 연대가 나오게 된다.<sup>32)</sup> 만일 『위서』가 3세기 중국 삼국시대의 문헌이 아니라 6세기 南北朝時代 魏收의 『魏書』라고 본다면<sup>33)</sup>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기원전 15세기가 된다.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살펴보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하한연대에서 전체역년을 거꾸로 올라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준왕이 기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을 중국문헌 특유의 윤색으로 보고 준왕을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인정한다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원전 194년경을 하한연대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의 전체역년은 약 1,000년설(혹은 약 1,200년), 1,500년설, 1,908년설이 있다. 이중 약

32) 리상호,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63 ; 김정배, 앞의 글, 2005, 9쪽.

33) 현존하는 북송대의 교감본 『魏書』에는 단군 기사가 없으나 일연이 참고한 『魏書』는 현재 전하지 않는 魏收의 古本 『魏書』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박대재,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2001, 21~27쪽).

1,000년설은 기자의 동래를 기준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끊어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1,500년설과 1,908년설이 남는데 기원전 194년 무렵에서 이 연대로 상한연대를 살펴본다면 각각 기원전 1,694년, 기원전 2,102년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앞에서 살펴본 두 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요임금시대 개국설’인 기원전 24세기~21세기와 ‘위서 편찬시점 기준설’인 기원전 18세기~15세기설이 문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타는 고고학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시기의 청동기문화인 요서지역의 夏家店下層文化와 요동지역의 雙砬子文化, 馬城子文化, 高台山文化는 기원전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북지역의 馬城子文化는 태자하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석회암 동굴유적에서 형성된 동굴무덤이다.<sup>34)</sup> 동굴무덤은 가족무덤이나 공동무덤의 성격이 강하고 묻기의 방식은 화장을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비슷한 시기의 주변지역 고인돌에서도 화장의 습속이 많이 조사되고 있어 비교된다. 겨묻거리는 한 무덤에 적게는 1~2점, 많게는 30여점이 겨묻기되어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무덤에서는 전쟁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묻힌 것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성자문화기에는 생산활동이 활발하여 잉여생산물이 생겨나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전문화, 계층화된 복합사회일 가능성이 많다.<sup>35)</sup> 요남지역의 雙砬子文化는 크게 3기로 구분되는데<sup>36)</sup> 1기는 토기의 일부가 山東龍山

3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編, 『馬城子: 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994.

35) 하문식, 『고조선시기의 장제와 겨묻거리 연구: 馬城子文化의 예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83, 2009.

36)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 『雙砬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科學出

문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2기는 岳石文化의 문화요소가 많이 나타나 이 지역이 완전히 岳石文化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견해도 있다.<sup>37)</sup> 그러나 雙砬子1,2期文化는 비록 산동반도의 같은 시기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외래문화의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전통을 유지하였다.<sup>38)</sup> 한편 요동지역은 기원전 15세기 경에 이미 고조선의 대표적인 묘제인 고인돌이 축조되고 있었다. 특히 요남지역의 벽류하, 대양하, 혼하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그 상한연대는 기원전 20세기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sup>39)</sup> 高台山文化는 下遼河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로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고대산문화에서 아직 대형 묘지와 높은 계층에 위치한 중심취락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冶銅 기술을 장악하고 매장제도도 규범화되어 이 문화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요서지역의 夏家店下層文化는 적지 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며 거주 주변의 경작지를 경계 원천으로 조직화하며 계층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夏家店下層文化는 하나라와 필적할 수 있는 강대한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sup>42)</sup> 이 문화를 고조선의 문화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43)</sup> 비파형동검과 청동거울 같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版社, 1996, 3~56쪽;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嘴子』, 大連出版社, 2000.

37) 王建華, 『試論遼東半島南部地區的史前文化』, 『遼寧師範大學學報』 4, 2005, 118~120쪽.

38) 趙賓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 趙賓福 지음, 禹枝南 옮김, 『中國 東北 先史文化研究』, 考古, 2011.

39) 하문식, 앞의 책, 1999.

40) 郭大順·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 2005; 郭大順·張星德 지음, 김정열 옮김,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2008, 619~630쪽.

41) 卜箕大, 앞의 책, 2002, 97~98쪽.

42) 郭大順·張星德 지음, 김정열 옮김, 앞의 책, 2008, 601쪽.

43)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6; 韓昌均,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

관련된 문화양상이 나타나는 十二臺營子文化부터 고조선의 문화로 보는 견해가 많이 나왔다. 과연 夏家店下層文化-魏營子文化-十二臺營子文化의 계승성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요동지역의 경우 계승성은 인정되지만 초기 청동기문화인 馬城子文化, 高台山文化 등은 씨족공동체사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44)</sup>

고조선은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주세력과 웅녀로 대표되는 토착세력이 결합하여 건국된 국가이다. 檀君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전조선에 해당하는 단군조선은 제정일치 단계의 초기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초기 국가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후대인 비파형동검문화를 기반으로 건국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으나<sup>45)</sup>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면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아사달사회는 신석기 문화 전통을 강하게 지닌 초기청동기사회로 이해된다.<sup>46)</sup> 고조선의 건국은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주민과 곰으로 대표되는 토착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환웅이 어디서 왔는지도 논쟁이 되는데 북방청동기 문화나 夏家店下層文化 등에서 찾거나<sup>47)</sup> 일찍부터 요동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한 흔적이 발견되는 山東龍山文化나 岳石文化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이후 비파형동검시기에 해당하는 후조선시기부터는 비파형동검을 상징으로 하는 요령지역의 고조선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직 전조선에 해당하는

전단계 시론』, 『國史館論叢』 33, 1992.

44) 이창규,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2011, 83~85쪽.

45)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46) 서영수, 앞의 글, 1999.

47) 서영수, 「고조선의 국가형성 계기와 과정」, 『북방사논총』 6, 2005, 30쪽.

시기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고조선 건국시기에 대해 현재로는 뚜렷한 결론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이유는 고조선의 물질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문제와 어떤 단계를 고조선국가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sup>48)</sup>

## 2. 단군왕검의 의미

고조선의 건국자에 대해서 『三國遺事』는 ‘檀君王儉’으로 『帝王韻紀』에는 ‘檀君’으로 기록하여 대조를 보인다. 『三國遺事』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조선의 건국자에 대해서는 檀君이라하며 여기에 이름은 왕검이라고 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檀君(檀君)의 의미에 대해서는 ‘몽고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Tengri와 그 뜻이 통하는 것으로 정치적·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호칭’<sup>49)</sup>이나 ‘박달족의 임금’<sup>50)</sup> 혹은 ‘박달로 상징되는 하늘숭배사상을 가진 집단에서 天祭를 주관하는 君’<sup>51)</sup>이라 보아 고조선시기 지배자의 호칭으로 보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단군이 호칭이라면 王儉의 경우는 단군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지 단군처럼 호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왕검을 건국자의 고유명사로 보는 것은 전통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왕검은 이두식으로 읽으면 ‘임금’으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역대 제왕의 칭호를 ‘임금’이라고 보거나<sup>52)</sup> 『三國遺事』고조선조에서 건국자를 말할때는 고유명

48) 서영수, 위의 글, 2005, 69~77쪽.

49) 최남선, 앞의 책, 1973, 60쪽.

50) 리상호, 앞의 글, 1963.

51) 윤명철, 『檀君神話에 對한 構造的 分析 : 神話素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상사학』 2, 1988, 183~189쪽.

사인 ‘단군왕검’이라하고 고조선의 도읍이동이나 존속기간을 말할 때는 보통명사인 ‘단군’이라고만 칭하여 이를 구분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53)</sup> 그러나 왕검 역시 보통명사인 호칭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후대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최남선은 단군왕검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를 ‘단군(당골)’은 종교적 제사장이며 ‘왕검’은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존칭으로 결국 단군왕검은 제정일치적인 사회의 우두머리로 보았다.<sup>54)</sup> 따라서 단군은 보통명사로 생각되니 역사적 인물로 다룰 수 없고 단군신화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sup>55)</sup>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적인 유추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檀君이라는 칭호만으로도 제정일치를 설명할 수 있으며 많은 문헌들은 檀君의 이름은 ‘王儉’ 혹은 ‘儉’이라고 하여<sup>56)</sup> ‘왕검’은 고유명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三國史記』에는 “平壤은 본래 仙人 王儉의 宅이다. 혹은 왕의 도읍을 王儉이라 한다.”<sup>57)</sup>라고 주석하여 王儉을 인명으로 언급하면서 왕의 도읍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김부식 또는 『三國史記』편찬자들이 주석한 것이라고 할 때, 『史記』나 『漢書』 등의 王儉城을 지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주석한 것인지, 『三國史記』편찬에 참고된 그 이전 史書에서의 이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sup>58)</sup> 단군을 부정하며 본래 지명으로 『史記』에 나오는

52) 申采浩, 앞의 책, 1948, 55쪽.

53) 尹乃鉉, 앞의 책, 1994 ; 윤내현, 「단군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전제」, 『단군학연구』 8, 2003, 190~191쪽.

54) 최남선, 「檀君及其研究」, 『別乾坤』 12·13, 1928.

55) 이기백, 「단군신화의 제문제」, 『한국고대사론』, 탐구당, 1975, 12~13쪽.

56) 『東國史略』 卷1 檀君朝鮮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1 前朝鮮 ; 『東史綱目』 卷1 己卯 朝鮮箕子 元年 ; 『海東異蹟』 檀君 ; 『修山集』 卷11 東史檀君本紀 ; 『海東釋史』 卷2 世記2.

57)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年條,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儉”

王險을 王儉으로 고쳐 단군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주장<sup>59)</sup>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래 건국자의 이름이 후에 고조선 통치자의 호칭이자 도읍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60)</sup> 즉 단군은 고조선시기 지도자의 칭호이며 왕검은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라고 파악된다. 제정일치 시기에 고조선에서 처음 사용된 지배자의 칭호는 단군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王儉’을 고조선 통치자의 칭호가 기존의 儉에서 이후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를 병기한 용어라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sup>61)</sup> 기원전 4세기말 고조선은 王을 칭했는데 그 이전에 사용된 고유의 칭호는 ‘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던 제정일치 단계를 벗어나 보다 발전된 사회에 들어가면서 고조선은 지배자의 칭호를 ‘검’으로 바꾸고 이후 ‘왕’으로 바뀌게 아닌가 한다.

또한 『詩經』에 나오는 서주시기 북방에서 追貊을 다스리는 韓侯<sup>62)</sup>를 고조선의 통치자로 파악하거나<sup>63)</sup> 고구려가 箕子神과 함께 섬기는 可汗神<sup>64)</sup>을 단군으로 보기도 한다.<sup>65)</sup> 여기서의 韓도 왕을 의미하는

58) 김성환, 앞의 책, 2002, 135쪽.

59) 今西龍, 앞의 책, 1937 ; 오다 세이코(小田省吾),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60) 申采浩, 앞의 책, 1948.

61) 서영수, 앞의 글, 1999.

62) 『詩經』 卷7 大雅 韓奕, “溥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貊 奄受北國 因以其伯 實墉實壑 實畝實籍 獻其貔皮 赤豹黃熊”

63) 尹乃鉉, 「中國文獻의 古朝鮮 認識」, 『韓國史論』 14, 國史編纂委員會, 1984, 127~135쪽 ; 徐榮洙, 앞의 글, 1988, 38~39쪽.

64)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其俗多淫祀事 靈星神 日神 可汗神 箕子神…皆以十月王自祭之”

65) 韓永愚, 앞의 글, 1982, 22쪽 ; 서영대,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61쪽 ; 김성환, 앞의 책, 2002, 143~145쪽.

‘검’과 같은 말로 이해된다. 중국인들은 이를 姓으로 오인하여 韓侯 또는 韓氏로 기록하였던 것이다.<sup>66)</sup> 한편 ‘검’은 고대 조선에서 최고 통치자에 대한 칭호로 ‘왕검’은 고대음으로 ‘한(칸)검’인데 韓은 임금을 부르는 말로 소국의 군왕도 쓸 수 있으나 ‘검’은 전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만 쓸 수 있는 칭호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67)</sup> ‘검’이란 칭호는 고조선의 건국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의 칭호로 사용된 것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자의 이름은 ‘왕검’ 보다는 ‘검’이 좀더 원형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결국 ‘檀君王儉은 고조선의 건국자를 일컫는 말이면서 동시에 전조선과 후조선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IV. 箕子와 箕子朝鮮

본 장에서는 먼저 후조선의 시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후조선의 건국자를 기자로 인식했던 견해의 타당성을 살펴보며 나아가 기자조선이 성립할 수 없다면 후조선에 어떠한 용어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 연대문제와 기자조선의 실재 여부

전조선과 후조선의 교체시기와 후조선의 시작 연대를 어떻게 볼

66) 서영수, 앞의 글, 2005, 92쪽.

67) 鄭寅普, 앞의 책, 1946 ; 정인보 지음·문성재 역주, 『朝鮮史研究 上』,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것인지는 고조선의 건국연대와 역년이 뚜렷하게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조선의 하한을 『帝王韻紀』 등의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기원전 1,286년) 혹은 주나라 무왕 기묘년(기원전 1,122년)으로 보았다.<sup>68)</sup>

후조선시기는 『三國遺事』의 ‘장당경-아사달’ 도읍시기에 해당한다. 고조선 건국연대를 기원전 2,300년경으로 잡고 여기에 전조선 시기에 해당하는 ‘평양-백악산 아사달’ 도읍시기인 1,048년(혹은 1,028년)을 빼다 보면 기원전 14세기말~13세기초가 된다. 건국연대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보다 약간 늦은 기원전 21세기로 본다면 후조선의 성립연대는 기원전 11세기가 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전조선과 후조선의 교체시기를 기원전 14세기를 전후한 시점<sup>69)</sup> 혹은 기원전 1,466년<sup>70)</sup>로 보고 있다.

전조선과 후조선이 교체되는 시기는 문헌상으로 보면 기원전 14세기~기원전 11세기에 해당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요서지역은 夏家店下層文化가 붕괴되고 魏營子文化가 존재했다. 魏營子文化에 속하는 和尚溝 유적<sup>71)</sup>과 高家洞 유적<sup>72)</sup>에서는 상말주초 청동기가 출토되어 황화유역과의 교류를 말해준다. 魏營子文化는 이후 비파형동검을 특징으로 하는 十二臺營子文化(혹은 凌河文化)와 공통적인 문화 요소도 보이지만 그 계승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sup>73)</sup> 양문화의 계승성 여부는 긍정적인 입장<sup>74)</sup>과 부정적인 입장<sup>75)</sup>이 엇갈리고 있다.

68) 전대준·최인철, 앞의 책, 2010, 48쪽.

69) 허중호 외, 앞의 책, 2001, 106쪽.

70) 전대준·최인철, 앞의 책, 2010, 50쪽.

7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2, 1989, 110~115쪽.

7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 1998-4, 1998, 39~41쪽.

73) 烏恩嶽斯圖, 앞의 책, 2008.

이 시기 요남지역에서는 雙砬子3期文化가 있었다. 雙砬子3期文化는 요동반도에서 岳石文化 요소가 소멸되면서 당지 토착문화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며 전단계에 발견되지 않던 적석묘 유적이 다시 등장하고, 이외에 벽류하 유역을 중심으로 고인돌이 유행하기 시작한다.<sup>76)</sup>

중국에서는 商·周 교체가 일어나 북경지역에 연나라가 봉해지며, 상멸망의 여파로 상유민이 이동을 시작하면서 기자동래설의 배경이 된 시기이기도 하여 동북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후조선의 시조를 상나라에서 망명한 기자로 본 것은 전통시대 오랜 인식이었다. 箕子의 이름은 胥餘이며<sup>77)</sup> 箕子は 箕 지역에 봉해진 제후를 일컫는 말이다.<sup>78)</sup> 따라서 기자는 개인의 姓名이 아니라 작위의 명칭이므로 기자의 작위를 계승한 인물은 모두가 기자로 불리어졌을 것이므로 역사상 기자는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상주 교체기에 살았던 인물로 조선으로 갔다는 전설이 있는 箕子 胥餘이다.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부정되었던 기자조선이 새롭게 부각된 것은 요서 대릉하 유역에서 상말주초시기의 유물이 매장된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특히 요령성 객좌현 북동 2호 유적에서 상말주초 기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眞侯方鼎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sup>79)</sup> 이 유물을 근거로 기자조선을 긍정하

74) 郭大順,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1987 ; 卜箕大, 앞의 책, 2002 ; 천선행,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2010.

75) 오강원, 앞의 책, 2006 ; 김정열, 『遼西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복합사회의 전개』, 『동양학』 52, 2012.

76) 백종오·오대양, 『遼南地域 青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2013, 250쪽.

77)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第8 所引 『史記索隱』, “箕國 子爵也 司馬彪曰 箕子名胥餘”

78)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第8 所引 『史記集解』, “馬融曰 箕國名也 子爵也”

79) 喀左縣文化館·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

나<sup>80)</sup> 혹은 상주청동기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유민을 앞세운 연나라의 진출 흔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sup>81)</sup> 그러나 이들 유적을 남긴 세력이 이 지역에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거나 군사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는 유물은 대부분 예기로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토착 문화와는 별도로 저장구덩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琉璃河遺蹟은 이 지역에 西周가 군사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상유민이 함께 이주한 사실을 알려주었다.<sup>82)</sup> 그러나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영정하 동쪽지역에서 조사된 서주문화 유적이 順義 牛欄山과 大廠 大坨頭 정도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3)</sup> 서주초기 연나라는 張家園上層文化라는 토착 세력의 존재로 세력범위 확대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永定河 일대를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서지역에 출토된 상주 예기에 ‘燕侯’ 명문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여 이를 연나라의 요서진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sup>84)</sup> 따라서 이들 유적은 상말주초라는 국제정세속에 소수의 상유민이 이동과정에서 남긴 것이거나<sup>85)</sup> 당시 토

周青銅器, 『考古』 74-6, 1974, 364~372쪽.

80)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35~42쪽; 李亨求,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 5, 韓國上古史學會, 1991, 7~33쪽; 楊軍, 『箕子與古朝鮮』,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9-3, 1999, 22~26쪽; 閻海, 『箕子東走朝鮮探因』, 『北方文物』 2001-2, 2001, 75~78쪽.

81) 町田章, 『殷周と孤竹國』, 『立命館文學』, 立命館大學 人文學會, 1981; 朴大在,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2010, 111~148쪽.

82) 裴眞永, 『中國古代燕文化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宋鎮豪, 『殷遺与殷鑒』, 社會科學, 2011, 149~154쪽.

83) 박상빈, 『北京 永定河流域의 청동기문화 연구: 상호작용권역과 문화변동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4, 207쪽.

84) 裴眞永, 앞의 글, 2000.

착문화인 魏營子文化가 중원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얻거나<sup>86)</sup> 혹은 약탈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보아야<sup>87)</sup>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발견된 靺 집단에 관련된 청동기는 약 150점에 달한다고 하는데<sup>88)</sup> 특히 서주초기에 제작된 靺器는 섬서성과 하남성, 하북성, 북경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靺器가 발견되는 것은 상주 교체의 여파로 靺族이 흩어져 이동한 결과로 보이며 이것은 주왕조의 상유민 분산정책과도 관련된다.<sup>89)</sup> 북동춘 유적에서 발견된 기후방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靺族의 일부가 이미 이른시기에 이 지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아도 세력진출이나 독자적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일부 유이민의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은 위만조선이 漢의 군대에 무너진 서한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서주시대에 靺族 관련 유이민이 이동했다고 보아도 기자동래설이 등장한 시기와는 시간적 간격이 크다. 오히려 서한시대와 멀지 않은 전국말기 혹은 진말한초의 유이민에 의해 기자동래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三國志』에는 秦漢 교체기에 燕·齊·趙지역의 백성 수만명이 조선으로 망명했다는 기록<sup>90)</sup>이 보인다. 문헌에는 단편적으로만

85) 趙院珍, 『遼西地域 出土 商周 青銅器와 箕子朝鮮 問題』, 『白山學報』 88, 2010, 101~127쪽.

86) 烏恩嶽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 科學出版社, 2008 ; 오강원,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 禮器 埋納遺構』, 『한국상고사학보』 74, 2011.

87) 김정영,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73~119쪽.

88) 沈載勳, 『商周 청동기를 통해 본 靺族의 이산과 성쇠』, 『歷史學報』 200, 2008, 372쪽.

89) 彭裕商, 『周初의 殷代 遺民』, 『四川大學學報』 2002-6, 2002 ; 宋鎮豪, 앞의 책, 2011.

기록되었으나 중원지역에서 조선지역으로의 이주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전국시대에 대릉하유역의 지배층들은 중원계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朝陽 袁台子遺蹟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계 문화의 유입은 주민의 이주와 함께 이루어졌다.<sup>91)</sup> 특히 앞의 기사에서 보이는 3지역은 모두 箕族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燕 지역의 경우 서주초기에 제작된 箕器가 발견되었으며<sup>92)</sup> 齊가 있던 산동지역에서는 춘추시기에 제작된 箕器가 발견되어<sup>93)</sup> 箕族이 최종적으로 정착했던 지역으로 보인다. 또한 趙는 기자의 후손으로도 알려진 中山國을 惠文王때 멸망시킨 나라이다.

## 2. 비파형동검문화와 후조선의 용어 문제

고조선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로 알려진 비파형동검은 흔히 十二臺 營子 유적이거나 남산근 유적이 가장 이른시기의 동검으로 그 연대는 기원전 9~8세기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보다 소급해보는 견해도 있는데 遼西의 和尚溝遺蹟을 근거로 기원전 10세기<sup>94)</sup> 혹은 기원전 10세기말~9세기초<sup>95)</sup>로 보거나 遼東의 二道河子遺蹟을 기원전 12세기로 보거나<sup>96)</sup> 雙房遺蹟을 기원전 12세기<sup>97)</sup>나 기원전 15~14세기<sup>98)</sup> 혹

9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傳,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 趙民避地朝鮮數萬口”

91)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156쪽.

92) 程長新, 『北京市順義縣牛欄山出土一組周初帶銘青銅器』, 『文物』1983-11, 1983, 64~67쪽.

93) 王獻唐, 『山東古國考』, 齊魯書社, 1983 ; 高廣仁·邵望平, 『海岱文化與齊魯文明』, 江蘇教育, 2005, 233쪽.

94) 김정배, 앞의 글, 2000, 23~24쪽.

95) 강인옥,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地域性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49, 2005, 75쪽.

96) 박진욱, 앞의 책, 1988, 13~14쪽.

은 기원전 16~14세로 보는 견해<sup>99)</sup>가 그것이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하여 요령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요동설<sup>100)</sup>과 요서설<sup>101)</sup>로 대립된다.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과 중심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고조선의 위치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요서지역을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 주목하여 하여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축이 처음에는 요서 十二臺營子類型에서 후기에는 요동 鄭家窪子類型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견해가 나와있다.<sup>102)</sup> 반면 고조선의 중심은 요동에 있었고 요동에서 오히려 요서로 진출했다고 보기도 한다.<sup>103)</sup>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二道河子類型과 雙房類型으로 나누어 파악하거나 일괄적으로 雙房文化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十二臺營子文化는 雙房文化가 대릉하유역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지방유형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104)</sup> 이 시기에는 미송리형 토기가 한반도 대동강 유역 이북지역과 요동지역의 개원과 청원 이남에 분포하는데 최근에는 혼하와 태자하 유역의 여

97) 복기대, 『遼西지역의 고대 검에 관하여』, 『백산학보』 78, 2007, 25~27쪽 ; 복기대,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 황하 유역 문화의 관계』,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98) 하문식, 앞의 책, 1999.

99) 한창균, 앞의 글, 1993, 7~10쪽.

100) 林溪,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1980-2, 1980 ; 박진욱, 1988, 앞의 책.

101)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1982-4·1983-1, 1982·1983.

102) 이청규, 앞의 글, 2007 ; 박준형, 앞의 글, 2012 ; 오현수,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14.

103)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景仁文化社, 2006 ; 문안식, 앞의 논문, 2011, 30~33쪽.

104) 趙賓福, 앞의 책, 2009 ; 趙賓福 지음, 禹枝南 옮김, 앞의 책, 2011 ; 趙賓福, 『요서지역의 문명 기원과 교류 : 한 이전 요서지역의 문화 발전 단계 건립 및 문화 전승과 교류 관계 연구』,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학연문화사, 2011, 139쪽.

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sup>105)</sup>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과 중심을 어디로 보든 노노아호산 동쪽의 대릉하유역을 중심으로한 十二臺營子文化와 요동지역의 雙房文化는 노노아호산 서쪽 노합하 유역의 夏家店上層文化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문화양상을 보인다. 노합하 유역과 대릉하 유역을 ‘요서지구’로 묶어서 동일한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견해<sup>106)</sup>도 있다. 그러나 十二臺營子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는 기물의 모양이나 유적의 상대적 차이점, 사유체계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어 구분되는 문화이다.<sup>107)</sup> 또한 노합하유역은 ‘유병식동검문화’지역으로 청동기 문화상과 토기문화에 있어서도 구분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북방 초원지대의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구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8)</sup> 다뉴세문경은 십이대영자 유적에서 발견된 이후 鄭家窪子, 集安 五通溝門 등 동방으로 확산되어 한반도의 남부, 그리고 日本 九州에 이르는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한국 내에서 발견되는 다뉴세문경의 유적은 대개 석관묘나 토광 목관묘인데 석실이나 토광 내에서 다뉴세문경이 놓인 위치가 요서·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 묘와 같다. 이는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는 이 두 지역 문화에는 동경문화인의 독특한 신앙의식과 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109)</sup>

중국문헌에는 춘추시대인 8~7세기 동북지역의 산융, 조선의 존재가 포착된다. 먼저 산융은 중원국가를 침입하며 중국문헌에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夏家店上層文化에 속하는 남산근 유적과 소혹석

105) 하문식, 「미송리형 토기 : 연구경향과 새로운 몇 자료」, 『고조선단군학』 27, 2012, 352쪽.

106) 蕪楓毅, 앞의 글, 1982·1983 ; 송호정, 앞의 책, 2003.

107) 복기대, 「夏家店上層文化와 룡하문화 비교연구」, 『선사와 고대』 20, 2004.

108) 김정배, 앞의 글, 2000, 6쪽.

109)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89~90쪽.

구 유적에는 다수의 중원식 청동예기가 현지 부장품과 함께 발견되었는데<sup>110)</sup> 산용으로 비정되는 내몽고 지역 토착세력이 중원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sup>111)</sup> 산용의 침입에 당시 약체였던 연나라는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 환공에 구원을 요청하고 이에 환공은 북쪽의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국까지 치고 돌아온다. 이때의 상황을 환공은 “북으로 孤竹, 山戎, 穢貊에 이르렀다”고 했다.<sup>112)</sup> 이때 환공의 북진은 고조선과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 고조선과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管子』에는 제나라의 북벌 과정에서 예맥이 언급될뿐 아니라 조선의 문피를 7대 교역품으로 들고 있는 등 이미 고조선과의 원거리 교역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3)</sup> 이때부터 고조선이 제나라와 교역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해로를 통한 교류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늦어도 춘추시대에 고조선은 제나라와 문피를 통한 교류로 중원국가에도 알려졌다.

묘도열도의 長島縣 王溝村 유적과 萊國의 도성이었던 黃縣 歸城 유적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표지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동부와 그 거푸집이 발견되고, 산동반도에서 석관묘군과 지석묘군이 분포되었던 것을 보면 고조선과 산동의 齊·萊國과의 교류가 꽤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114)</sup>

110) 遼寧城昭烏達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宇城縣南山根的石椁墓』, 『考古學報』 1973-2, 1973, 27~39쪽;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編, 『小黑石溝: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8.

111) 姜仁旭, 『소흑석구로 본 夏家店上層文化의 새로운 인식』, 『한국청동기학보』 4, 2009.

112) 『管子』 卷8 小匡, “北之於孤竹 山戎 穢貊”

113) 『管子』 卷23 揆度; 卷23 輕重甲.

114) 박준형, 『古朝鮮의 春秋 齊와 교류 관계』, 『백산학보』 95, 2013.

중원국가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공격하던 산융이 약화되면서 이후 동북지역은 고조선이 건재한 상황에서 燕文化의 동진과 東胡의 등장으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파형동검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6~5세기에는 동북아 최대급의 다뉴경 부장묘가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정가와자 유형에서 나타나며 이 단계에 이르러 조문경의 확산 범위가 동쪽으로 한반도로 넓혀진다고 한다.<sup>115)</sup>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바뀌는 시점인 전국시대에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립하면서 중국문헌에도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연나라와 稱王으로 경쟁하기도 했는데<sup>116)</sup> 늦어도 이 시기에는 이미 국가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나라와 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 예를 파견하여 주도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한 것은 군사력과 외교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수십년뒤 고조선은 강성해진 연나라의 침입을 받게 된다. ‘자손들이 교만하고 포악해졌다’는 표현을 본다면 고조선은 진개의 침입이전에 이미 연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연나라는 소공의 부국강병 정책이 성공하여 동방의 최강국가인 제나라를 제압할 정도로 국력이 커지자 북쪽의 동호를 공격하고 이어서 동북지역의 고조선을 공격했다. 『史記』에서는 연이 동호를 치고 5군을 설치했다고 했으며<sup>117)</sup> 『위략』에서는 조선이 2,000리의 땅을 잃고 비로소 약해졌다고 기록했다.<sup>118)</sup> 이때 고조선이 상실한 영토는 遼西와 遼東의 2군에 해당하며<sup>119)</sup> 이때 고조선은 서쪽의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고 중심지를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115) 이청규, 앞의 글, 2007, 93~95쪽.

116)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 韓傳 所引 『魏略』.

117) 『史記』 卷110 匈奴列傳

118)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 韓傳 所引 『魏略』.

119) 서영수, 앞의 글, 1999, 110쪽.

진개 침입 직전의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풍부한 청동기 유물이 매장된 정가와자 유적이 있었던 심양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나와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초기 세형동검 등의 청동기갖춤새, 점토띠토기, 흑도 장경호 등의 토기와 목관묘 등이 확인되는 태자하 유역 이남에서 천산산맥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는 견해<sup>120)</sup>, 十二臺營子文化圈이 기원전 6~4세기에는 遼西 南洞溝類型과 遼東 鄭家窪子類型을 중심으로 하는 2개 연맹체로 재편되어 2개의 조선이 진개의 침략을 받았다는 견해<sup>121)</sup>, 遼西 南洞溝類型은 고조선의 산융의 연합세력인 貊國이며 遼東 鄭家窪子類型을 고조선의 중심으로 본 견해<sup>122)</sup>, 十二臺營子文化와 鄭家窪子類型이 고조선과 관련되며 요동반도의 崗上類型은 發로 보는 견해<sup>123)</sup> 등이 그것이다.

전조선 시기를 제정일치 단계의 ‘단군조선’이라 부른다면 후조선인 이 시기는 기자조선이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 이상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 이미 검조선설<sup>124)</sup>, 한씨조선설<sup>125)</sup>, 예맥조선설<sup>126)</sup> 등이 제기된바 있다. 먼저 한씨조선설의 경우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후 스스로를 韓王이라고 했다거나 조선지역에 머물던 준왕의 지지세력이 성을 韓氏로 했다는 점에서 준왕이 한씨라는 것이다. 그러나 韓이라는 성을 그 이전에도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예맥조선설의 경우 『史記』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표현으로<sup>127)</sup> 이전까지의 조

120) 이청규, 앞의 글, 2007, 96~97쪽.

121) 오강원, 앞의 글, 2013, 202~212쪽.

122) 오현수, 앞의 글, 2014.

123) 조진선, 앞의 글, 2014, 119~124쪽.

124) 鄭寅普, 앞의 책, 1946.

12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126) 김정배, 앞의 책, 1973.

127) 『史記』 卷110 匈奴列傳 “東接穢貉朝鮮 … 東拔穢貉朝鮮以爲郡”

선이라는 명칭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표현이었는데 한 대에 예맥조선이라는 표현은 종족명칭이 부가되었다는 점에서 ‘예맥족이 사는 조선’이라고 이해한다.<sup>128)</sup> 그러나 예맥조선은 전조선시기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후조선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조선은 후조선시기에 중국에서 도입된 왕호를 사용하기 전에 ‘검’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일치 단계인 앞시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후조선을 대체할 용어를 쓴다면 ‘검조선’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국내문헌을 기준으로 고조선사의 체계를 세우고 이와 더불어 고조선에 관한 고고학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문헌중에서 『三國遺事』의 기록이 원형에 가깝지만 세부적인 도입이동시기는 기자동래 기사가 삽입되어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의 전체 역년은 ‘평양-백악산 아사달’시기가 약 1,000년이고, 장당경 시기까지 포함하면 1,500년, 아사달로 돌아온 시기까지가 1,908년인 것이 원형에 가까운 체계로 보인다.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요임금시대 개국설’인 기원전 24세기~21세기와 ‘위서 편찬시점 기준설’인 기원전 18세기~15세기설이 문헌에서 제시되는 연대이다.

檀君(檀君)은 고조선시기 지도자의 칭호이며 王儉은 고조선 건국

128) 김정배, 앞의 책, 1973 ;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자의 이름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제정일치 시기에 고조선에서 처음 사용된 지배자의 칭호는 단군으로 파악된다. 기원전 4세기 고조선은 왕을 칭하는데 그 이전에 사용된 고유의 칭호는 ‘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던 제정일치 단계를 벗어나 보다 발전된 사회에 들어가면서 고조선은 지배자의 칭호를 ‘검’으로 바꾸고 이후 ‘왕’으로 바뀔게 아닌가 한다. 이 ‘검’이란 칭호는 고조선의 건국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왕검’ 보다는 ‘검’이 좀더 원형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檀君王儉’은 고조선의 건국자를 일컫는 말이면서 동시에 전조선과 후조선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전조선과 후조선이 교체되는 시기는 문헌상으로 보면 기원전 14세기~11세기에 해당한다. 후조선의 시조를 상나라에서 망명한 기자로 본 것은 전통시대 오랜 인식이었으나 기자가 동래했다 보아도 고조선 변방에 망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전조선 시기를 제정일치 단계의 ‘단군조선’이라 부른다면 후조선인 이 시기는 기자조선이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 이상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 고조선은 후조선시기에 중국에서 도입된 왕호를 사용하기 전에 ‘검’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일치 단계인 앞시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후조선을 대체할 용어를 쓴다면 ‘검조선’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고조선(왕검조선)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시대구분을 한다면 기원전 20세기~11세기의 전조선(단군조선)과 기원전 10세기~2세기의 후조선(검조선)으로 나눌 수 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이후 비파형동검시기에 해당하는 후조선시기부터는 비파형동검을 상징으로 하는 요령지역의 정치적 실체로 고조선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조선에 해당하는 시기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중국에서 상나라는 분명한 역사시대지만 하나라는 역사시대인지 전설시대인지 논쟁중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후조선에 해당하는 시대가 역사시대라는 것은 어느정도 긍정되고 있으나 전조선시대의 경우 아직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논쟁중이다. 이것은 앞으로 비파형동검 전후 문화의 계승성 문제와 과연 어느 정도의 사회 수준부터 고조선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한국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사의 체계

문헌 \ 연대	『三國遺事』(일부수정)	『帝王韻紀』	『東事』	
B.C.24C	평양·백악산 아사달 도읍 시기	전조선 (단군조선) 1,028년	단군조선 약 1,000년	
B.C.14C	장당경 도읍 시기	공백(164년)	기자조선 928년	
B.C.12C				
B.C.9C	아사달 도읍 시기	후조선 (기자조선) 928년	북부여 약 1,000년?	
B.C.3C				
B.C.2C	위만조선	위만조선	마한, 위만조선	동부여
B.C.1C	삼국	한사군, 열국		고구려, 백제

※ 주제어 :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검조선, 단군왕검

※ 투고일자 : 11. 17    심사일자 : 12. 04    게재확정일자 : 12. 06

## 〈참고문헌〉

### 1. 사료

『管子』, 『舊唐書』, 『記言』, 『東國通鑑』, 『東史綱目』,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尙書』, 『修山集』, 『詩經』, 『帝王韻紀』, 『標題音註東國史略』, 『海東釋史』, 『海東異蹟』

### 2. 단행본

-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鄭寅普,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1946.
- 安在鴻, 『朝鮮上古史鑑』上, 民友社, 1947.
- 申采浩,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3, 岩波書店, 1970.
-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1973.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王獻唐, 『山東古國考』, 齊魯書社, 1983.
-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6.
- 박진옥, 『조선고고학개요 : 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1993.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本溪市博物館 編, 『馬城子 : 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994.
- 河文植, 『古朝鮮地域의 고인돌 研究』, 백산자료원, 1999.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編, 『大嘴子』, 大連出版社, 2000.
- 허종호 외, 『고조선 력사개관』, 중심, 2001.
- 김성환,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 卜筮大,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 宋鎬晷,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高廣仁·邵望平, 『海岱文化與齊魯文明』, 江蘇教育, 2005.
- 郭大順·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 2005.
-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景仁文化社, 2006.
- 吳江原,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 문화』, 청계출판사, 2006.
- 郭大順·張星德 지음, 김정열 옮김,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2008.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編,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8.
- 烏恩嶽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 科學出版社, 2008.
- 趙賓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
-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10.
-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 : 고조선사』, 과학백과출판사, 2010.
- 김정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趙賓福 지음, 禹枝南 옮김, 『中國 東北 先史文化研究』, 考古, 2011.
- 宋鎮豪, 『殷遺與殷鑒』, 社會科學, 2011.
- 정인보 지음 · 문성재 역주, 『朝鮮史研究 上』,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 3. 논문

- 최남선, 「壇君及其研究」, 『別乾坤』12·13, 1928.
- 리상호,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63.
- 遼寧城昭烏達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宇城縣南山根的石椁墓」, 『考古學報』1973-2, 1973.
- 喀左縣文化館·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74-6, 1974.
- 이기백, 「고조선의 제문제」, 『한국고대사론』, 탐구당, 1975.
- 이기백, 「단군신화의 제문제」, 『한국고대사론』, 탐구당, 1975.
- 林滢,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1980-2, 1980.
- 町田章, 「殷周と孤竹國」, 『立命館文學』, 立命館大學 人文學會, 1981.

-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3, 1982.
- 靳楓毅, 1982·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1982-4·1983-1.
- 程長新, 「北京市順義縣牛欄山出土一組周初帶銘青銅器」, 『文物』1983-11, 1983.
- 尹乃鉉, 「中國文獻의 古朝鮮 認識」, 『韓國史論』14, 國史編纂委員會, 1984.
- 郭大順,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1987.
- 金貞培,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 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金廷鶴, 「考古學上으로 본 古朝鮮」,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方善柱, 「韓·中 古代紀年の 諸問題」, 『아시아문화』2, 1987.
- 徐榮洙,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2, 1988.
- 윤명철, 「檀君神話에 對한 構造的 分析: 神話素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 상사학』2, 1988.
- 한규철, 「숙신 읍루 연구」, 『백산학보』35, 198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2, 1989.
- 한영우, 「17세기 중엽 南人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일지사, 1989.
-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1, 1991.
- 李亨求,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5, 韓國上古史學會, 1991.
- 박진옥,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조선 고대 및 중세초기사연구』, 교육도서관사, 1992.
- 韓昌均,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國史館論叢』33, 1992.
- 李清圭,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42, 1993.
- 서영대,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97.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1998-4, 1998.
-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29, 1999.
- 楊軍, 「箕子與古朝鮮」,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1999-3, 1999.
- 金貞培,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88,

2000.

- 裴眞永, 「中國古代燕文化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 박선미,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 14, 2001.
- 박대재,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2001.
- 閻海, 「箕子東走朝鮮探因」, 『北方文物』 2001-2, 2001.
- 朴峻亨, 「‘濊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 『學林』 22, 2001.
- 彭裕商, 「周初의 殷代遺民」, 『四川大學學報』 2002-6, 2002.
- 윤내현, 「단군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전제」, 『단군학연구』 8, 2003.
- 박준형, 「古朝鮮의 대외 교역과 의미 : 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2004.
- 북기대, 「夏家店上層文化와 룡하문화 비교연구」, 『선사와 고대』 20, 2004.
- 양지영, 「古代 肅愼에 관한 研究」, 『중국사연구』 32, 2004.
- 김정배, 「古朝鮮과 琵琶形銅劍의 問題」, 『단군학연구』 12, 2005.
- 강인욱,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地域性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49, 2005.
- 서영수, 「고조선의 국가형성 계기와 과정」, 『북방사논총』 6, 2005.
- 王建華, 「試論遼東半島南部地區的史前文化」, 『遼寧師範大學學報』 4, 2005.
- 李仁哲,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제조건과 귀속문제」, 『中央史論』 23, 2006.
- 북기대, 「遼西지역의 고대 검에 관하여」, 『백산학보』 78, 2007.
- 북기대,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 황하 유역 문화의 관계」,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 이청규,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2007.
- 沈載勳, 「商周 청동기를 통해 본 貊族의 이산과 성쇠」, 『歷史學報』 200, 2008.
- 姜仁旭, 「소혹석기로 본 夏家店上層文化의 새로운 인식」, 『한국청동기학보』 4, 2009.
- 김정열,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차광호, 「《三國遺事》 '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사학지』 41, 2009.
-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 20, 2009.
- 오다 세이코(小田省吾),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

원, 2009.

- 하라다 가즈요시(原田一良), 「《本紀》檀君即位年の復元」,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민속원, 2009.
- 하문식, 「고조선시기의 장제와 겨문거리 연구 : 馬城子文化의 예를 중심으로」, 『백산학보』83, 2009.
- 朴大在,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2010.
- 趙院珍, 「遼西地域 出土 商周 青銅器와 箕子朝鮮 問題」, 『白山學報』 88, 2010.
-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청규,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2011.
- 오강원,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構」, 『한국상고사학보』 74, 2011.
- 趙賓福, 「요서지역의 문명 기원과 교류 : 한 이전 요서지역의 문화 발전 단계 건립 및 문화 전승과 교류 관계 연구」,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학연문화사, 2011.
- 김정열, 「遼西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복합사회의 전개」, 『동양학』 52, 2012.
- 문안식, 「한국상고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 박준형,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이도학,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 『한국사상사학』 40, 2012.
- 하문식, 「미송리형 토기 : 연구경향과 새로운 몇 자료」, 『고조선단군학』 27, 2012.
- 박준형, 「古朝鮮의 春秋 齊와 교류 관계」, 『백산학보』 95, 2013.
- 백중오·오대양, 「遼南地域 青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2013.
- 오강원,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2013.
- 박상빈, 「北京 永定河流域의 청동기문화 연구 : 상호작용권역과 문화변동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4.
- 오현수,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한중연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진선,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동양학』 56, 2014.

<Abstract>

## Dangun and Kija - Systematic study of the history of Kojoseon

Cho, Won-Chin

Kojoseon(古朝鮮)'s system must first be based on the Domestic literature. And the best choice to combine the archaeological material.

“Samgukyusa(三國遺事)” was in 1908 that the history of Wanggeomjoseon(王儉朝鮮). On the other hand, “Ghwangungi(帝王韻紀)” is a history of 1028 years Dangunjoseon(檀君朝鮮), then was followed by a Kijajoseon(箕子朝鮮) 928 years.

The contents of the “Samgukyusa(三國遺事)” close to the original state in the dual. Kojoseon(古朝鮮) is 1,000 years was also a time when Pyungyang(平壤) and Baekaksan Asadal(白岳山 阿斯達). The combined 1500 until the time was the capital of Jangdang-kyung. Both moved the capital back to the time of the 1908 Asadal combined.

There are two founding Chosun era of 24th century BC - 22th century BC and the 18th century BC - 15th century BC. This is the date presented in the literature.

Is the title of Dangun Kojoseon(檀君朝鮮) time leaders, Wanggeom(王儉) is the name of the founder of Kojoseon(古朝鮮). The title of the first ruler in the Kojoseon(古朝鮮) is used Dangun(檀君).

The title was later changed to the Geom(儉), the Wang(王) after the title was changed again.

The Kojoseon(古朝鮮 : Wanggeomjoseon 王儉朝鮮) is divided into Dangunjoseon(Front Joseon) and Geomjoseon(Later Joseon). The bipahyung Bronze Dagger(琵琶形銅劍) used Geomjoseon(儉朝鮮) era is obvious historic period. But Dangunjoseon(檀君朝鮮) is under discussion among the history and legends. Entity will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future research.

※ Keywords : Dangunjoseon, Kijajoseon, Geomjoseon, Kojoseon, Dangun Wanggeom, Samkukyusa